

# 일본, 교토의정서 준수 “비상”

## 2002년 온실가스 배출량 13억3100만톤 ... 13.6% 감축해야

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던 일본의 환경대응에 적신호가 켜졌다.

일본정부는 일본의 200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대비 2.2% 증가한 13억3100만톤에 달했다고 발표했다.

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정지에 따라 전력구성비 중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고 광공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1990년의 총배출량에 비해 7.6% 증가해 교토의정서에서 공약한 1990년 대비 6%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흡수원 대책을 포함해 13.6%를 감축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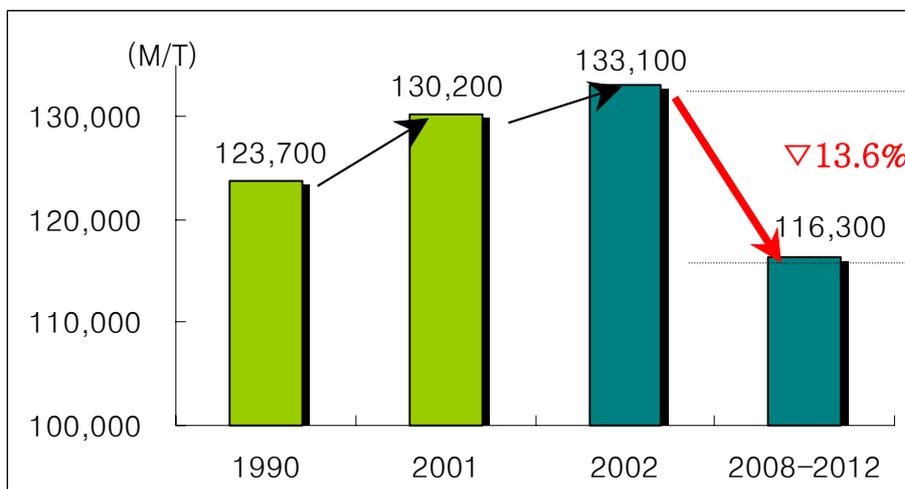
2002년에는 여러 가지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정지해 전력구성비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에 비해 4% 정도 하락했다.

이에 따라 화력발전 비율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광공업 생산이 회복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CO<sub>2</sub> 배출량이 전년대비 2300만-2800만톤 증가했다.

가계부문도 2001년에는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아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이 예년에 비해 줄었으나 2002년에는 평년수준으로 돌아왔다.

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90%를 차지하고 있는 CO<sub>2</sub> 배출량은 전년대비 2.8% 증가한 12억4800만톤으로 국민 1인당 배출량이 9.79톤에 달하고 있다.

### 교토의정서 6% 감축약속과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



1·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부문은 전년대비 3.6% 증가한 4억680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1.7% 감소했으나 운수부문은 2억6100만톤으로 1990년 대비 20.4%, 기타부문은 1억9700만톤으로 36.7%, 가계부문도 1억6600만톤으로 28.8% 증가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.

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은 메탄이 석탄 채굴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1950만톤에 머물러 1990년 대비 21.1% 감소했으며, 일산화이질소도 Adipic Acid 제조에 따른 배출량 감소로 3540만톤 줄어 11.9% 감소했다.

HFC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1330만톤으로 기준년도인 1995년에 비해 34.1%, PFC도 960만톤으로 1995년 대비 23.4%, SF<sub>6</sub>은 530만톤으로 68.7% 감소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.

<화학저널 2004/07/12>